

구 데미야선 산책로: 오타루의 철도 유산을 따라

1.6km의 산책로는 홋카이도 최초의 철도 일부 구간을 따라 이로나이 은행가를 지나 구 데미야선 시설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폐선된 데미야선 선로와 건널목 차단기가 보존되어 있어 무역 거점으로 번성했던 당시 도시의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손을 뺄면 닿을 거리에 전차가 굉음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데미야선은 호로나이 철도가 처음으로 개통된 구간으로 1882년에는 호로나이 철도 전체 노선이 개통되었으며, 호로나이(현재의 미카사시)의 새로운 탄광과 오타루 항구의 데미야에 있는 석탄 적재 전용 부두를 연결했습니다.

데미야선은 데미야 철도 시설에서 훗날 미나미오타루역으로 이름이 변경되는 오타루역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증기 기관차는 호로나이 철도로 삿포로를 경유해 오타루까지 달려가 혼슈로 출하하는 석탄을 운반하고, 화물을 싣고 승객을 태워 오타루와 홋카이도 중부의 목적지 사이를 달렸습니다.

개통당시의 여객 열차는 데미야~삿포로 사이를 하루에 1번 왕복했으며, 소요 시간은 편도 3시간이었습니다. 홋카이도 철도망이 발달하면서 삿포로와 하코다테에서 오는 객차는 더 내륙부에 있는 신오타루역을 지나게 되었지만, 현지 승객을 위한 일부 여객 운행과 화물 및 석탄의 수송은 계속해서 데미야선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데미야선의 여객 영업은 1962년에 폐지되었지만, 화물 수송은 1985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로나이 은행가 근처의 여객역 플랫폼을 보면 데미야선이 오타루의 발달에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